

예술웃 입은 목포 원도심...재도약의 봄이 온다

본궤도 오른 도시재생사업

목포 원도심에 봄이 오고 있다. 찬란한 슬픔의 봄이 아니라 제2의 전성기를 마중하는 희망에 찬 봄이다.

어느 도시나 오래된 동네가 있고 그 곳에는 비좁은 골목에 파리를 틀고 앉아 있는 할아버지·할머니 같은, 허름하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집이 있다. 목포 목원동이 바로 그런 곳이다.

최근 2년 새 목원동에 역사·문화·관광이 어우러진 '예술의 웃 입히기'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.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'목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' 때문이다. 목포시는 4년 연차사업(2014~2017년)의 마지막 해를 맞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. 목원동의 골목길을 재조명하고 감성을 살린 감성벽화는 물론 다양한 테마별로 특화된 벽화를 조성해 목원동을 골목길 투어의 명소로 만든다는 게 목포시의 기본전략이다.



김우진 거리 조감도



달성동 벽화마을 조감도



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전경

역사·문화·관광 어우러진 명품관광루트

자드락 골목길 조성 '견고 싶은 목포'로

'목마르트'·김우진 거리 등 감성여행 만끽

200억원 투입 '10개 마중물 사업' 박차

●민선 6기 첫 프로젝트 '도시재생' 열정 쏟다

목포 도시재생 사업은 박홍을 목포시장의 민선 6기 출범 직후 시작된 첫 프로젝트로, 민선 6기 성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주목을 받고 있다.

그동안 박홍을 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'견고 싶은 목포'와 '목포의 재발견'이라는 컨셉을 직접 제안하고 도시재생은 침체된 원도심을 되살리는 새로운 활력자이 핵심 키워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심과 열정을 쏟아왔다.

목원동 일원 60만㎡를 대상으로 마중물 사업 10개 분야에 28개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 게 핵심 골자다.

10개 마중물 사업은 ▲유류 시설을 활용한 역사·문화·관광 활성화 ▲관광루트 조성 ▲특화장터 ▲주택개량 및 경관관리 ▲커뮤니티센터 및 마을기업 조성 ▲도시재생 기반 구축 등이다.

●'명품 골목길' 새 트렌드 되다

28개 세부사업 가운데 '관광 루트 테마거리'와 '이야기가 있는 자드락 골목길' 조성 사업이 가장 눈길을 끈다. 일제 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을 비롯해 유달산·노적봉 등 자연자원, 항구축제, 인물 스토리텔링 등을 통합·연계시킨 독창적인 탐방로를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.

관광루트는 원도심에 산재된 주요 문화유적 19개소를 걸어서 탐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으로 '목마르트' 거리, 구름다리 거리, 김우진 거리 등 3개 테마로 구성됐다.

목마르트 거리에는 고은과 범정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포토 존과 벽화가 설치되고 옥단이 전방 데크, 남동 하천 테마 존 등이 조성된다.

구름다리 길은 목포만의 색(Color)을 테마로 한 거리공간으로, 거리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중심부에 위치한 구름다리를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. 이를 위해 구름다리가 무지개 색으로 꾸며지고 이때방과 자법석 조형 벽화가 설치된다.

김우진 거리에는 길 노면에 원고지를 형상화 시킨 작품을 수록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.

또 '이야기가 있는 자드락 골목길'은 만인게터 거리, 자드락 골목길, 남진 생가 등 주민의 생활 동선인 골목길을 활용해 목포의 생활상과 이



자드락골목길 조감도

야기가 담겨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, 지역문화자원에 역사자원을 가미한 탐방로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.

이곳은 해설사와 함께 동행 하면서 바닷가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보고 남도의 풍성한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.

목포시는 지난해 마을학교를 통해 지역 역사, 문화유적, 예술인, 옛 지명 등을 교육시킨 골목길 해설사 17명을 선발·배치해 전화로 신청(061-243-8994)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. 지난해에만 5000여명의 관광객이 골목길 투어를 다녀갔다.

한편 명품 골목길 조성사업에는 총 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7월 모두 마무리된다.

●'남행열차 포차' 원도심 활성화 이끌다

지난해 10월 중앙식료시장 인근 도심광동도로 주변에 호남선이 개통된 1914년의 의미를 살려 '1914 남행열차 포차'를 개장한 이후 목포 원도심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.

특히 포차를 찾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불 꺼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.

남행열차 포차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, 목포만의 특화된 별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게 인기의 비결이다.

●'목포의 재발견' 목포만의 색을 입다

도시재생 사업 지구 내 목포만의 색(色)을 입히는 것으로 주택 개량지원과 경관관리 사업이 펼쳐진다. 총 12억원이 투입되는 주택 개량사업은 유달산 비탈면에 위치한 폐가 10호를 포함 노후불량주택 120호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.

또 경관 관리는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항구도시 목포를 상징하는 고유의 색채를 선정해 목원동 일대 오래된 가옥 120호의 지붕을 도색,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해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.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시는 주민참여형 마을기업을 육성했으며 색채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57%를 얻은 주황색으로 일괄 도색을 추진한다.

박홍을 시장은 "최근 KTX, SRT(수서발 고속열차) 개통으로 늘어난 관광객들이 목포역에서 내린 후 곧장 명품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다도해 풍광과 함께 곳곳에 산재된 근대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"면서 "오는 7월까지 지원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상케이블카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해 목포 원도심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 것"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.

/목포=고규석기자 yousou@



목마르트 거리 조감도



구름다리길 조감도



봄비는 남행열차 포차

메디컬센터
순창터미널 맞은편

분양 및 임대

1층 약국, 제과점, 편의점 기타
2층 내과, 검진센터
3층 안과, 피부·비뇨기과

4층 치과, 이비인후과
5층 정형외과, 한방의학과
6층 물리치료실

대지면적 : 1,057㎡ 지상6층, 주차장 27대
1층 : 101호 129.5㎡(구 39평), 102호 137.6㎡(구 41평)
103호 83.4㎡(구 25평), 104호 129.5㎡(구 39평)
2층 : 201호 240㎡(구 72평), 202호 240㎡(구 72평)
3층 ~ 6층 : 2층과 동일

주소 |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-5번지

(주)우원 (주)태우종합건설

(063) 653-7806

분양문의
010-4922-3317

광주·전남
기능장1호

大山 프리모 남가발

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

국무총리상 표창·보건복지부장관 표창
광주광역시상 표창·광주남구 구청장 표창

특수가발 별매(원터치)
완전 탈부착형
테이프 X, 핀 X
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!

M.H.타사
130만원
신제품
59만원~
브랜드
동급제품

매주 화요일, 휴무(일요일 정상영업)
본점 :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
대표전화 : 062673-5858, 672-4622
원장 이수채 010-3600-9955

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
NAVER 주스(D) 대신프리모

백미트
남구행
500m
구내공고
大山프리모가발